간악한 이세벨과 교회의 야합

(계2:18~29)

18.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간악한 이세벨과 교회의 야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 선민의 나라 왕이었던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이 이방나라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선민의 나라 왕 아합이 결합한 것처럼, 그렇게 이세벨과선민의 회인 교회가 야합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그 윤곽을 아주 뚜렷하게 특징을 잡아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면 좋을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네 번째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요.
이 네 교회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 다른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묘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가지의 주제가 점차적으로 전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점층법이라고 해야 될지 점강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점강법이라는 거는 큰 단위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이고, 점층법은 작은 단위에서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수신제가치국평천하' 하면, 이거는 점층법이 되는 것이지요.
마음을 닦고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집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린 다음에 평천하를 한다.
거꾸로 얘기 할 수도 있겠지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어야 되고 나라를 통치를 잘하려면 집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집안을 잘 다스리려면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점강법인데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요즘은 또 점강법도 점층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천하를 다스리려면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강조하려는 게 나 자신을 잘 수련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걸 먼저 얘기하니까, 악센트의 세기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점강법도 점층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주제가 점차적인 단계를 따라서 발전해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주제가 뭐냐? 주제가 뭡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바깥에 세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제에요.
시공의 세계와 시공 바깥 세계 사이에 우리 마음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교인이냐 교인 아니냐가 구분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말한 내용이 뭡니까? 첫사랑이 식었다, 첫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시공 안에 살고 있지만 시공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시공의 세계 안에 있는 내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켜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켜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촛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이 아니면, 이 시공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어둠의 세계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빛을 받아서 밝히는 게 촛대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늘에 두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 칭찬을 했잖아요, 칭찬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처음과 마지막인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환란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시공간 바깥 세계에 두고 거기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만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시간과 공간 바깥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드릴 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일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 이 지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이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는 걸 알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서는, 내가 환란을 당하고 궁핍하지만 그 바깥에 있는 처음과 끝을 연결해서 보면 사실은 부요한 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얘기할 때 왜 사단의 회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쪽에 있지요?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가 와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도달할 점이 어디입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점이 어디입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 타민족 위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회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까?
좋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당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인데 그 내용이 발람의 교훈과 똑같다는 얘기에요.
발람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간교한 천재일 겁니다.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종교와 정치와 생활이 통합되어 있던 그 시대에서, 발람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비교하면은 3,000년 뒤에 일어날 일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상황을 그때 실현시켜 버립니다.
종교와 삶을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 이름을 너희가 불러라, 이름을 붙잡아라.
버가모 교회에 그러잖아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안디바가 순교당할 때도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다,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늘의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러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 때는 이 세속의 삶은 또 그

삶의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이다.'
'세속의 삶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잘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풍요를 누리고 우리의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해 가지고 다 자손들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방식이 있다, 그 방식을 따른다는 게 뭐나 나쁜 거냐? 그 방식이 바로 뭐냐 하면, 바알숭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모압왕 발락에게 훈수를 둔 겁니다.
이 훈수가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혼합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 바알브올 사건 때 여호와 이름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붙들고 있지만, 세속의 삶에서 필요한 삶의 방식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자! 오늘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의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발람과 이세벨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알 숭배에요.
바알 숭배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같이 섬긴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풍요와 다산을 추구한다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늘에 계신 그분에 대한 이름 부르기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분리를 시킨 거예요.
세속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 가지고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도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은 점은 그렇게 바알, 풍요와 다산을 주장하는 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으로 대변되고 있는 풍요와 다산에 대한 추구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럽니다, 용납했다.
보세요, 바알은 모압왕 발락에게 어떻게 훈수를 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건드리지 말고, 대신에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바알 숭배를 제시해라.'
그래 갖고 여자들이, 그 바알 숭배를 하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선민이 바알숭배 쪽으로 온 거에요.
근데 이 이세벨과 아합왕의 결합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선민 가운데로 바알숭배로 뼈까지 쪄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왕비로 들어왔습니다.
발람의 교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세속의 삶의 방식을 터득하라고 하는 그런 권유를 따라 참여한 건데, 이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제 들어온 거는 어떤 차이를 갖게 되느냐?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를 때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교회 원리가 있고 세상 안에는 세상 원리가 있다' 그대로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과의 결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속에 풍요와 다산, 부자 되고 싶은 마음과 이 땅에서 번성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발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놔둬라,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이 땅의 번영과 풍요를 추구하게끔 만듦으로써 하늘로 마음을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자라 그럽니다.

근데 이세벨과의 결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 하나님까지도 하늘에 놔두지 말고 이 땅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네가 이루고 싶은 이 세상에서의 꿈과 비전이 있지 않느냐? 부자 되고 수적으로 번성하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 땅 위에서 형통하는, 그러한 꿈을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을 놔두지 말고 땅으로 끌어내려라, 끌어내려서 그 하나님까지도 동원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세벨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성전 그대로 있고 제사도 그대로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면서 사업장에 나가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사업장에서 돈이 많이 벌리면 기쁠 거라는 마음을 갖고 사업장에 나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의 근거를 돈 많이 벌려는 일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양한테 다 옮겨져서 이 양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이세벨이 들어와 이 세속에서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나쁜가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1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이 일을 위해서 종사하는 신이 될 때 참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간증을 해요, 근데 간증이 대부분은 어떤 간증이냐 하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업을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길이 없었습니다. 내 주머니에 남아 있는 건 단 돈 10만원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만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10만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갔더니 이제 내가 이렇게 갑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금식하며 부르짖었더니 암 덩어리가 쑥~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예화로 들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정~말 구겨진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지금 별 볼일 없는 개천 같은 상황이라도, 개천에서 용 나는 것처럼 우리가 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예화를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성공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또 그런 앞에 있는 간증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번영하고 성공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 간증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주님의 모습을 '불꽃같은 눈으로'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불꽃같은 눈을 가지신 분.
좀처럼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세벨과 결탁된 신앙,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바알 신앙을 선민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립니다, 더 열심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맹이가 빠져버렸습니다, 알맹이가 변화 돼버렸어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한 사건입니다.
자식이 열 명이나 있어요, 다~ 잘되고 자식들이 화목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동방에서 제일가는 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탁월한 친구들이 주변에 존

재합니다.
완전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이 상태를 놓고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를 합니다.
나를 공경하는 욥을 보았느냐? 사탄이 말합니다, 그게 무슨 공경입니까? 나한테 그런 재산 주시고 나한테 그런 잘되는 자식 주시고, 나한테 그런 명성과 인기 그런 걸 다 허락하신다면, 나도 공경하겠습니다.
이런 뜻의 말로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건드립니다, 사탄이.
'give and take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정도로 많은 걸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지, 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욥이 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이 모든 것보다 앞서서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
사탄은 '아니다'
'그러면 시합해 보자!' 해 가지고 모든 걸 다 뺏어 갑니다,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자! 이 상황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게 살아갑니다.
나 그런 선배 목사님 봤어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당신이 나와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요즘 나는 꿈속을 걷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런 모든 간증들,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불꽃같은 눈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충성이 부족한가? 섬김이 부족한가? 헌금이 부족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바뀝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많은 풍요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간음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음과 우상재물은 도덕적으로 성적인 쾌락이 좋아서 추구하느라고 선을 넘는 행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재물과 연관돼서 하는 얘기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마음에서 나온

행동들인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도덕적인 탈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주석가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뭐가 간음입니까?
하나님 말고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게 간음입니다.
그게 마음에 들어와서 만족하는 거, 그게 간음입니다.
이 간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하시는 분이냐? 내가 돈으로 만족하는 간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돼버립니다.
이세벨이 이토록 간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벨이 이 교회에서 누구일까요?
이세벨과 같은 사상을 가진 한 여자일 수도 있고, 이세벨에 의해서 대변되고 있는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무리일 수도 있고, 그 사상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삶을 위해서 철저하게, 직장과 가정과 시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사업,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많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이라고 하는 말 속에 나머지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건, 교회 활동 전체를 말합니다.
근데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믿음 이 모든 덕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간음하도록 간음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고 그래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간증은, '내가 이세벨과 결탁해 가지고 영적으로,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데, 이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자가 그 기쁨 안에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을 막지 않아요, 만족을 막지 않아요, 행복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 마음을 시공간 바깥에 둠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 때문에 생긴 기쁨 안에서 자녀를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때 자녀를 뜻대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잘됐기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께 고마워하는 거는, 하나님은 더 이상 기쁨의 근거가 아니고 내 자식 키우는 가정교사입니다.
사업 잘되게 해 주는 모사꾼에 불과합니다.
자! 가정교사를 훌륭한 사람 만나가지고 내 자식이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정교사 때문에 기쁜 겁니까, 내 자식이 서울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쁜 겁니까?
서울대학 들어갔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닙니까?
기쁨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풍요와 다산 아닙니까? 이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늘에게 끌어내린 거예요.
이게 이세벨이고 이세벨의 간악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다산과 번영과 인기를 부흥을 위해서 쓰임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참 신이겠느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돈 안 벌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 예화 들 때 조심하세요.
그래,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자리에 섰으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인과.
그게 기독교인의 인생입니까? 왜 그런 예를 들어요?
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땅 위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드는 겁니까? 그게 끝입니까?
아! 이건 간음의 예를 드는 거예요, 간음의 예를.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쌨어요.
그게 다~ 예화 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나는 너희들이 시공간 안에 마음을 두고 시공간 안에서 너희 마음을 기쁘게 할 것들을 추구할 때, 그거를 이루어주기 위해 돕는 자가 아니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버린다.'
침상이라는 게 뭐에요? 완전히 쓸모없이 병든 인간으로 만들어서 끝장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간음하는 모든 자들의 자녀를, 이세벨과 간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들이 잘되기를 바라는데, 그 자식들에게 진짜 죽는 꼴을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로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주석과 같은 발이 뭡니까? 그 가증스러움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밟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우면서 한편으로 그 정도로 주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뭐로 자신이 있으신 겁니까?
하늘에 있으시면서 하늘에 있으신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환란과 역경이 처해져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게, 이 지상에서 어떤 환란이 주어지고 어떤 실패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기쁨과 행복에 절어서 살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질어 보이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기쁨의 이유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입니까?
간음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과 더불어 동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때문에 기쁜 상태에서 사업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상태에서 자식도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서 진짜 촛불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의 불꽃같은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언제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불꽃같은 눈이 아니면 그 잘못을 찾아낼 수 없는 참으로 교묘하고 간교한 음행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풍요에 대한 다산에 대한 번성에 대한 꿈과 비전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